

보배찾기

금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보배찾기'였습니다.

1. 자기 기업의 백성(신 7:1-11)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신다. 남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진짜 모습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고 자기 기업의 백성(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부르신 것은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효가 적기 때문이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선택하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은 자기 기업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벧전 2:9). 바른 정체감은 바른 감사와 바른 사명으로 이어진다.
2.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니라(잠 20:15)  
세상에 금도 귀하고 진주도 귀하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이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입술은 생명을 살리지만 악한 말은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잠 10:11). 말도 등급이 있다. 1등급의 말은 살리는 말, 2등급의 말은 사무적인 말, 3등급의 말은 죽이는 말이다.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재는 온도계이다. 그러나 동시에 말은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하는 온도 조절기이다. 지금 세상은 비판운동으로 차갑기만 하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반을 겁니다' 등 1등급의 말을 유행하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 지혜의 공동체가 되자.
3.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니라(사 33:1-6).  
유다왕 히스기야 당시 앗수르의 산헤립이 침략해 왔다. 막강한 군사력 앞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만의 의지하고 그를 경외함이 보배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시고, 아침마다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구원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밤새 앗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치셨다. 그리하여 그 세대에 평안함이 있었다. 우리도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가 있다. 이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이다.
4. 흑암 중의 보화(사 45:1-7)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 별은 캄캄한 밤이어야 잘 보인다. 지금 고통스럽다고 낙심하지 말자. 오히려 흑암 중의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숲이 울리면 석탄이 된다. 그러나 숲이 더 많이 울리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흑암 중의 보화를 캐는 것은 기도이다. 인내와 믿음으로 보화를 캐자. 아프고 보화도 못 캐면 얼마나 억울한가?
5. 밭에 감추인 보화(마 13:44)  
은행과 금고가 없던 시대에는 향아리에 보화를 넣고 땅에 묻어 보관하였다. 그런데 전쟁이나 난리가 나서 그 땅을 떠나 못 돌아오게 되면 발견한 자가 임자가 되었다. 그러나 온전히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향아리가 묻혀있는 밭을 사야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한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하는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감격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울이 그랬다. 당신은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가?
6. 질그릇에 담긴 보배(고후 4:6-15)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빛을 담은 장소로 질그릇을 선택하셨다.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간이다. 작은 바이러스에도 썩썩 못하고, 작은 삶은 소리에도 밤잠 못자고 괴로워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의 희망은 보배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도 힘에 지나는 고생을 했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도 당했다. 그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이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다(고후 1:9). 그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후 4:14). 그분이 당신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낙심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자.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넷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새벽이슬회(청년)	오후 8:00 (금요일)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 (3세 미만)	오전 11:00
	유치부 (3-5세)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미정(T.B.A)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에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VISION 2022  
EVANGELISM  
MARCH

뉴욕에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추수감사주일예배

제 31권 47호 주후 2022년 11월 20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홍정자목사	우영주목사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593, 589장		
기도	임병설집사	김동환장로	정수영장로
입교식	집례자		
성경봉독	합(Hab.) 3:16-19		
찬양	중고등부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없을지라도 감사 김중훈목사		
찬송	630장		
봉헌	다같이		
환영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11월 23일 오후 8:30

- 기도: 홍선영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김영애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권철혼집사
- 2부: 전용수장로
- 3부: 김용호장로

11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박용녀권사, 손정민집사
- 3부: 한진영권사, 유희정집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민수기 (2)'
- 교회 내 마스크 착용 및 성도간의 악수는 자율에 맡깁니다.  
교회와 사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Address: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추수감사절 안내

- \* 추수감사주일 : 11월 20일 1-3부 예배  
입교 예식 - 3부 예배, 본당  
\*입교자: 조재호 (조현열성도&박정혜집사), 정하은 (정윤종집사&정주현집사)  
한샘 (한규만집사&한진영권사), 전희수 (전영진집사&전영희집사)  
김진성 (김성한집사&김진화집사), 박다인 (박제진집사&김지애집사)  
추수감사주일 장식 바꾸니 - 각 선교회 및 교육부서별  
추수감사만찬 - 6선교회주관, 각 선교회별로 친교실에서  
\* 추수감사절 절기헌금 금년 예산 : \$ 90,000
- **추수감사절 오행시:** 오행시 공모에 많은 성도들께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 부목사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창립 30주년 성경필사:** 오늘부터 용지배부, 1월 31일까지 제출
- **회계 감사:** 각 선교회는 12월 4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두성장로, 감사위원: 정재남집사)
- **2023 교회생활 지침서 주소 변경신청:** 부목사실
- **니카라과 선교:** 2023년 2월 23일 - 27일  
\*경비: 1인당 \$1,200, 문의: 지재홍장로
-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제 연습:** 각 찬양대별로 찬양대실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 꽃: 최양미권사 (남편생일), 정종권집사&정제인집사(결혼기념)  
- 사랑의 식탁: 최양미권사 (남편생일), 이경섭집사 (아내생일)  
- 2023년 강단 꽃 및 사랑의 식탁 신청: 본당 뒤편 게시판에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11am Service).  
Zoom QR Code for Sermon Translation



감사의 씨 뿌리기(고후 9:6-15)

1. 감사는 씨를 심는 것과 같다(6절).  
1)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2) 미국의 청교도  
추위, 전염병,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은 것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로 섬기기 위해 오게하신 것을 감사했다. 여러 종류의 식물을 심었지만 실패한 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그 중에 옥수수가 성공한 것을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감사절을 지켰다.  
3)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뀐다. 우리 자신이 바뀌면 결국 환경도 바뀐다.
2.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10절).  
1) 씨는 심어야 하고 양식은 먹어야 한다. 씨를 먹으면 먹을 양식이 없어진다. 씨는 감사이다.  
2) 부부사이에, 부모와 자녀사이에, 성도 사이에 감사의 씨를 심어보자.  
3) 브라더 로렌스는 교육도 못받았고, 다리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카르멜 수도원 부엌에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사의 씨를 심다가 이후에 수도원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를 부엌의 성자라 부른다.
3. 감사는 펌프의 마중물과 같다.  
1)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8절).  
2) 성도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기도 하며 사모하게 한다(12-14).  
3)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사고가 나기 전에 1:29:300이라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 감사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감사를 당연히 여기다가 큰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축복이 쏟아질 날이 온다. If의 감사, Because의 감사도 귀하지만, In spite of의 감사까지 드려보자.

[적용]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보자.
2. 내가 드릴 평생의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우동정

- **축결혼** 김민화자매 (11/26 토, 김창연집사&윤정희 전도사)
- **한국방문** 최승연 형제

행사예고

- 11/27 교역자 Retreat
- 12/04 선교회총회
- 12/05 정책당회(목사관)
- 12/10 선교회 신/구임원 조찬기도회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
- CSN (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 K-Radio AM 1660 (라디오): 매주 수요일 오후 12:54 (목회자 칼럼)